

“반당”은 죄가 아니다

공산당이 독재하는 중국대륙에서는 “반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왜냐하면 “반당”은 죄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민주사회에서는 “반당”은 죄가 아니고 “반당”이라는 죄명도 없다.

“반당”이란 무슨 뜻인가? “반당”이라는 함의를 분석해보면 “반”자는 반대한다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생활에서 찬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이 늘 생기게 된다. 당을 반대한다는 것도 역시 희노애락의 자연적인 상태이고 일종 표달일 따름이다. 사람마다 머리로 사고하고 입으로 말하고 글로 의사를 표명하고 법률로 공평을 수호하고 있다.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다. 당을 찬성하지 않고 부동한 의견과 비평을 제기했다고 하여 어찌 “반당”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마다

인권자유, 언론자유, 신앙자유가 있다고 선언했고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인권, 언론, 출판, 결사, 종교신앙 등 방면에서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이다. 사람마다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언론, 사상, 신앙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당을 반대할 자유가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세인들의 생명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공의 10여년의 잔혹한 박해속에서 “찢싼런”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랍치, 감금, 혹형, 살인, 생체장기적출을 하고있는 중공의 박해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대 죄란 말인가? 탐오, 절도, 부패, 기편, 폭행하고 있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밝힌 “9평공산당”을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중공악당들이 파룬궁수련생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박탈한 것이 곧바로 죄이며 이러한 사악한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우리들의 신성한 권리이다.



환영을 받은 파룬궁대오

2010년 7월 4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경절 234주년 기념활동이 거행되었다. 전국각지에서 온 100여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그중 락관적이고도 독특한 풍채가 있는 파룬궁대오가 제일 환영을 받았다.



파룬따파소개회를 거행

2010년 7월 1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스포트와 호텔에서, 국립병원 의사 페리·히다야트는 관중들에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파룬따파의 특이한 효과에 대해 해석했고 파룬궁학원들은 파룬궁 5조공법을 배워주었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제지시키자!



한국에서

지난 7 월 18 일, 한국 안산시 아동공원에서 “7.20”파룬궁반박해 11 주년집회를 열고 중공이 11 년동안 파룬궁학원을 잔혹하게 박해한 죄행을 폭로했고 박해를 제지시키고 원흉을 엄벌하자고 호소했다.(윗 사진)



대북에서

반박해 11 주년에 즈음하여 대만 북부지역 파룬궁학원들이 지난 8 월 18 일에 신의광장에서 “정의와 량지를 발양하고 중공의 피비린 박해를 제지시키자”라는 주제로 집회와 시위행진, 초불 추도회(윗 사진)를 거행했다.



박해로 세상 뜬 파룬궁수련생 양복진

연길시파룬궁수련생 양복진(杨福进)은 2000 년 10 월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시간수소에 한달남짓 감금되어 있다가 선후로 연변로교소와 9 태음마하로교소에서 2 년동안 고역살이했다.



2004 년 5 월, 연길 시공안국과 조양가파출 소 악경들이 양복진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대법재료들을 빼앗아갔다. 양복진은 할수없이 온 집식구들을 데리고 목 단강에 가서 4 년동안 류 리걸식했다.

2008 년 연변국보대대 소빈과 박귀남은 목단 강에 가서 양복진을 랍치하여 돈하시간수소에 갇 아넣었다. 진윤룡 등 악경들이 그를 만나질 매달 아놓고 심문했다. 선후로 돈하, 도문, 연길간수소 로 옮겨온 양복진은 악경들의 박해를 받아 뇌혈 진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다. 나중엔 양복진은 4 년 판결을 받고 병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2010 년 1 월 29 일, 양복진의 안해 은봉금(殷凤琴)이 박해로 사망된후 비분에 잠긴 양복진은 모진 정신타격을 받았고 악경들의 위협, 공갈 을 받아 최근에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6 월 22 일, 연길시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파룬궁학원 장흥재(张兴财)、장배제(张培齐)、김 광일(金光日)에게 각기 유기도형 3 년、4 년、2 년판결을 내렸다.

■ 지난 6 월 19 일 오전 10 시경, 도문시파룬궁학 원 도수지(陶秀芝)、리순희(李顺姬)는 진상을 이 야기하다가 신화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최근에 화룡시법원에서는 파룬궁학원 진원성(秦元成)、서연량(徐延良)、한송해(韩松海)、리 려(李丽) 등을 재심판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 지난 6 월 14 일 4 시경, 팔가자 파룬궁학원 악 덕주(岳德洲)와 그의 안해 왕옥결(王玉杰)은 악경 들에게 랍치되어 화룡시아동저수지 쇠뇌반에 압 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 월 19 일 오후 4 시, 화룡시팔가자 파룬 궁학원 정수근(郑秀芹)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7 월 20 일 점심, 맹헌무(孟宪斌)와 맹단 (孟丹)은 연길시건공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 였고 집수색을 당했다.

선약에는 보응이 있는 법 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사람들은 즉각 박해 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 하기 바란다.

